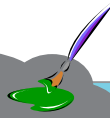


설문대문화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d.or.kr)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책읽는아이들 모임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 논리적 글쓰기

* 주말 책 놀이터

- 약당개미 탐험대
- 알쏭달쏭 과학실험교실
- 수학 귀신이랑 놀자

* 책읽는여우들

* 행복한책나들이

(농촌 병설유치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11월)

*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논리적 글쓰기, 약당개미 탐험대, 알쏭달쏭 과학실험교실, 수학 귀신이랑 놀자
접수일자 : 8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

후원해주신 분들

-CMS 후원인 명단

강경남 강경림 강경희 강동근 강만숙 강문정 강병관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수민 강수선 강순연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인숙 강지니 강찬구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만성 고명옥 고미경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효 고양열 고영미
고영순 고유경 고유숙 고유식 고익숙 고정희 고현권 고희영 김경미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영심 김기옥 김량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조
김봉진 김성림 김성호 김성환 김인자 김세희 김소희 김수옥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연지 김영미 김영민 김영완 김오순 김옥희
김용남 김용식 김용택 김유신 김유정 김윤자 김인영 김재윤 김재한 김정금 김정윤 김중현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현정 김호숙 김효정 김희정
문계양 문금선 문미혜 문유성 문인하 문재홍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서은영 서종석 성영희 송미경 송명혜
송시우 송지영 송춘미 신우용 안연하 안은희 양가에 양석현 양연식 양용선 양인희 양재성 양정옥 양정원 양정은 양종수 양진건 양호선 양희연
양희선 양희정 양희연 오금숙 오신순 오승룡 오승훈 오영민 오정민 오정심 오정임 오중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우상임 우지숙 유만중 유종상
윤경숙 윤경희 윤종호 윤정환 윤지현 윤희순 이경선 이경의 이경희 이광복 이덕순 이상현 이상희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식 이창식 이현동 이현백 이혜연 이호석 이효열 이희숙 임경률 임관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임형주
장미애 장소영 장수명 장은정 장현선 정갑열 정동진 정명선 정영수 정영우 정윤준 정유탐 정유탐 조용숙 좌순영 좌순자 좌춘자 지희정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정실 진창욱 차지연 채정심 채희영 최미자 최종진 최형규 한길숙 한상희 한혜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명옥
현오정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효정 (주)제주관광가이드 (이상 239명)

* 새롭게 CMS로 후원해 주신 분들 : (주)제주관광가이드, 강순연, 한길숙, 현명옥, 김수옥, 임형주, 고영순, 송명혜, 이현백님 감사합니다.^^

* 책 기증해 주신 분들

바람도서관, 고슴도치 어린이집 용눈이반 친구들 책구입비 20만원, 최수하 아버지, 노무현재단 감사합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독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도서관은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약 9,500여권의 도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 운영은 후원자 분들(약 250여명)의 CMS 자동이체 후원금과 강좌 참가 수입으로 신간도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에 알차게 쓰이고 있습니다.

설문대를 이용하려면....

1.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 오후7시 (동절기는 6시까지).(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2.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은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주민등록증 지참). 회원으로 가입되면 책 대출은 무료이고 강좌는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3. 도서대출 안내 한 사람이 3권, 한 가족이 한번에 6권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1주일 입니다.

* 대출 기한을 넘기면 그 날은 대출이 안 됩니다. 다음날 다시 오셔야 합니다.

4. 후원안내 우리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되는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구입하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손길이 필요 합니다.

fU책나무 키우기 CMS 자동이체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시는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설문대 소식



*설문대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 프로그램강좌 참가자를 모집 합니다.

*올해 농촌유치원 책읽어주는 물메병설초등유치원으로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18명의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우리를 반겨준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책읽어주기 활동 7년을 후딱 지나게 하네요.

*찾아가는 도서관 "시민사서양성과정"이 6월1일부터 총6회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책의 감동을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고 아이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했답니다. 우도를 포함, 먼 곳에서도 열심히 참석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제주그림책연구회가 주관하는 <그림책학교>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 8차레에 걸쳐 국내 유명 그림책 작가, 기획자, 이론가들을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좌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리적여건 때문에

유명강사를 섭외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련한 그림책교실을 통해 그림책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만화가 기린샘을 초청,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화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미남 총각선생님의 재미있는 만화이야기에 모두들 대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KBS제주방송 <휴먼토크, 공감>에 우리도서관이 소개되었습니다. 장장20분 동안 설문대가 걸은 길이 방송으로 나간 덕택에 홍보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설문대 여름방학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 "약당개미 도서관을 점령하라!"

- 대상 :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 일시 : 7월 22일 ~ 23일
- 접수 : 7월 16일부터 선착순 현장접수

2011년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 대상 : 초등 1학년~4학년
- 일시 : 8월 23일 ~ 8월 26일 오전10시~12시
- 접수 : 7월 16일부터 선착순 현장접수

여름방학집중특강 설문대 아이들 토론교실

- 대상 : 초등 5~6학년(12명 선착순 접수)
- 일시 : 8월1일~12일 (오후 2시~4시) 10회 20시간
- 접수 : 7월 18일부터 12명 선착순 접수

찾아가는 도서관

'책 보따리,
글 보따리'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의 책 놀이터를 자청하고 있다. 책을 보는 것만 아니라 책 속에 풍덩 빠져서 노는 곳.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곳이길 바란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도서관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나보다. 예전보다 도서관의 모습이 한산해 도서관 지킴이들이 기운이 빠진다.

"아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면 저녁 6시가 다 돼요. 저녁 먹고 놀다 숙제해야 하는데 언제 도서관 가요?"

도서관에 자주 오던 녀석이 간만에 도서관에 나타나서 왜 그동안 안 보였냐고 물었더니 되돌아 온 답이다. 오히려 그 아이가 묻는다. 도서관에 못 가는지 왜 모르냐고. 이제 당연해진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설문대도서관에서는 꼭 도서관에서만 책문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선생님들에게 책문화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멀리 우도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시는데 참여하는 선생님들 모두 열의가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돌아가셔서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책을 보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리라 믿는다.

원시적인 악당들



외도초 4학년 2반 13번 이연우

태풍이 오는 지난 토요일에 우리악당들은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었다. 관장님께 놀러 갈 거냐고 전화해보니 갈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실내에서 놀겠지 생각을 했는데 설문대 도서관에 가니까 오빠들이나 남자아이들은 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자고 했다. 언니들은 싫다고 하였다. 나는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면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모험이었다. 바다에 가는 길부터 뱀이 나오고, 길은 미끄러워서 마치 '곰 사냥을 떠나자'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았다. 숲에서 관장님은 대나무를 꺾어서 낚싯대를 만들어 주셨다. 거기에 관장님께서 가져오신 낚싯줄을 매달아서 새우미끼를 찌다. 그리고 7-8분후에는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우럭과 뱀장어가 주로 잡혔다. 여기저기 잡힐 때마다 관장님을 목이 쉬도록 부르며 인증 사진을 찰작 찍었다. 동회가 흥분했는지 물속에 입수를 했다. 날카롭고 미끄러운 바위들이 너무 힘들었다. 바위 때문에 다리도 많이 굽히고 폭풍이 곧 몰아칠 것 같은 날씨에 겁도 좀 났다. 또, 동회처럼 바위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 했다. 그래도 중독이 되었는데 낚시를 계속하고 싶었다. 동굴 안에서 불을 피워 우리가 잡은 물고기들을 구워먹었다. 까맣게 구워진 장어와 우럭을 초장에 찍어서 먹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였다. 역시 관장님은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악당에 가면 정말 내가 원시시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TV나 컴퓨터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느낌이 든다. 관장님은 양의 고삐를 풀어주어서 일까. 다음 학기에 또 다른 악당 모임이 기대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책



강영미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지킴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내 나이 28살 때 나를 웃게 만든 책이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거실에는 온통 그림책으로 가득하다. 내 아이들은 어제 보았던 그림책을 오늘 다시 뽑아 읽고 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봤던 책을 또 선택하게 하는 것일까?

6월 제주그림책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그림책학교’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열렸다. 그림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림책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작가이시며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백’ 선생님은 “예술을 즐기자” “예술은 대중문화다.” 라고 하셨다. 그동안 책여우들이 책축제, 여름 · 겨울독서교실을 위해 애썼던 모든 것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예술 활동이었던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뿌듯했다.

‘그림책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폴란드의 그림책작가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와 작업하셔서 이번에 볼노라가치상을 수상한 그림책기획자 이지원선생님은 ‘싸게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최고의 것을 담아 책을 만들어야한다’는 1970년대 러시아의 아방가드로들의 활동을 소개하셨다. 작은 돈으로 그림책을 소유하고 만지는 재미와 자유를 어린이에게 주면서도 현대적인 예술면을 소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는 ‘누구를 위한 그림책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하셨다. 그녀와 나의 공통점! ‘그림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라는 것.

그림책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 그림책 한권으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는 나는 행복하다.





‘헤이온와이’ 그 땅에 서다

유럽의 책마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국의 괴짜한 책벌레 리차드 부스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1962년에 ‘책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웨일즈지역 헤이마을에 처음으로 책방을 연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1971년에는 12세기 초에 지어져 허물어 가는 ‘헤이캐슬’을 사들여 성 전체를 책방으로 꾸미고 1977년에는 “헤이온와이는 대영제국의 일부분이다”라고 선언하여 독립왕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스스로 ‘서적왕’ 리처드 부스가 되어 왕위즉위식을 거행한다.

영국의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놈이 벌이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의 한숨소리 ‘정신 나간 놈’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던 책 마을 사업. 그러나 이곳은 지금 1,500여명의 주민이 40여개의 책방을 운영하고 마을전체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책 매니아들을 위해 민박집, 식당, 갤러리와 공방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책 마을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책마을이 되었다.

런던 페딩턴역에서 기차로 3시간,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니는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1시간 이상 걸려서 도착한, 책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오고 싶어하는 헤이온와이 책 마을. 제주도 촌놈이 이 책 마을에 두발로 서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떨림이었다. ‘헤이캐슬’을 중심으로 발길 닿는데 마다 늘어서

있는 헌책방들... 이들 동안 이 마을에서 먹고 자면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헌책들의 신비로운 조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들의 신비로운 조화를 제주의 어느 농촌마을에서 되살려 보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다.

이런 ‘헤이온와이’ 책마을의 성공에 힘입어 젊은이들이 떠나고 쇠락해 가는 마을을 살리려는 운동이 유럽의 책마을 만들기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유럽전역에 21개의 책마을이 생겨났고 마을마다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남아있지 않은 유럽의 시골마을은 각 나라마다 현실적인 고민거리였고 따라서 어떤 곳은 한 사람의 의지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책 마을을 만들어 낸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책 마을을 조성한 곳도 있다.



파이팅! 설문대 도서관!!

정 경 희 · 책 읽는 여우회원

전북 익산에서 내려와 재미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열정적인 책여우랍니다.

“설문대 도서관이요”

무슨 소리냐고요? 하하하

제주도에 오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외치는 소리랍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들은 저를 설문대 도서관으로 이끌어준 지인의 예쁜 딸내미들이지요.

매일 매일 작은 도서관에서 사는 친구들인데도 설문대는 꿈의 동산인가 봅니다.

“설문대에 왜 가고 싶을까?”

살짝 물어보았는데, 글썽 그게 도서관 옆 공원도 마음에 들고, 놀이터 같은 설문대의 분위기라 재미있게 책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좀 더 거창한 대답을 기대한 제가 바람이 빠지는 풍선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주도에 온지 6개월이 된 지금!! 매주 목요일이면 설문대에 갑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면 반겨주는 책들, 올망졸망 관장님의 손길이 닿은 화분들, 정겨워서 꼭 한 번씩 눈길을 줘야 하는 의자와 소품들이 먼저 반겨주네요. 책과 아이들이 있어 마냥 행복한 관장님과 책을 보러 오는 아이들, 반납하러 오시는 어머님들과 책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비록 한주에 한 번 오는 도서관이지만 머리와 가슴이 행복하다고 나에게 스스로 말해줍니다.

“감서”어설뿐 저의 제주말에 “갑서”로 화답해주시는 관장님을 뒤로하고 도서관을 나옵니다. 하루를 또 잘 보냈다는 뿌듯함 뒤에 따르는 아쉬움은 더 많은 아이들이 소리로 설문대가 가득 채워지길 소망해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제주도를 찾는 어린이 여행자들의 필수코스, 아니 첫 번째로 들러 즐겁게 책도 읽고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가는 전국의 설문대가 되길~